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대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자아탄력성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

: 20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The Main and Interaction Effects of Control Parenting and Early Adolescents' Ego-Resiliency on Peer Attachment

: Focusing on the Data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0

이미숙(Mi-Sook Lee)¹, 민하영(Ha-Young Min)^{2*}

¹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²Department of Child Studie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among control parenting, early adolescents' ego-resiliency and peer attachment. The subjects were 2,346 1st-year middle school students from all over the country.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2010)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Pearson's correlation, hierarchical regression, and by the use of SPSS 19.0. The results of our study are as follows.

First, parents' control parenting operated as a major determining factor with the effect that peer attachment decreased as parents' control parenting levels increased. Second, early adolescents' ego-resiliency operated as a major determining factor with the effect that peer attachment increased as adolescents' ego-resiliency levels increased. Finally, the interaction effects of parents' control parenting and early adolescents' ego-resiliency on peer attachment were observed.

▲주제어(Key Words) :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control parenting), 초기 청소년의 자아탄력성(early adolescents' ego-resiliency), 또래애착(peer attachment)

I. 문제제기

중학교 입학은 '1318'로 상징되는 청소년기의 공식적 입문을 뜻한다. 청소년기에 공식적으로 입문한 중학교 1학년의

경우 2차 성장에 의한 생물학적 변화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 변화도 경험한다. 학교생활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족 내 부모 중심의 애착관계가 학교 내 친구 중심의 애착관계로 확장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부모와 강한 애착 관계를

• 본 연구는 2012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2013년도 한국가정관리학회 주관 공동춘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논문을 확장한 것임.

* Corresponding Author : Ha-Young Min, Department of Child Studie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Hayang-eup, Kyeongsan, 712-702, Korea, Tel: +82-053-850-3545, E-mail: hymin@cu.ac.kr

형성하고 있다(Kerns, Tomich, & Kim,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보다 더 많은 시간을 친구와 지내면서 생각이나 감정 또는 경험이나 문제를 함께 공유한 친구를 부모 이상의 중요한 사회적 지지원이나 애착 대상으로 평가(Brown & Klute, 2006)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기에 입문한 중학교 1학년에게 친구는 '의미있는 타자(significant others)'로 평가될 만큼 중요하다. 사회적 관계 안에서 친구 관계가 중요해지면서 친구 관계의 질은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며(Berndt, Hawkins, & Jiao, 1999), 우울, 불안 등 부정적 정서 경험을 낮추는 등(Armsden et al, 1990; Neils & Rae, 2009) 심리 사회적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친구 관계가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청소년기 특히 초기 청소년기의 경우, 친구관계의 질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라도 주의깊게 관리되고 지도되어야 할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친구 관계의 질 중 또래애착은 청소년의 사회적 능력이나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래와의 정서적 결속이나 유대감을 의미하는 또래애착은 부모와 형성한 애착의 질에 의해 영향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rmsden & Greenberg, 1987; Noom, Dekovic, & Meeus, 1999; Laible, Carlo, & Raffaelli, 2000). Bowlby를 위시한 애착이론가들은 부모와 형성된 애착의 질이 사회적 관계에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능력의 토대라고 설명한다(Bowlby, 1973, 1979, 1982; Jun & Lee, 2002; Meeus, Oosterwegel, & Vollebergh, 2002; Sroufe et al, 2005). 그리고 생애 초기 주 양육자와 형성된 안정되지 못한 애착 관계는 또래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Dekovic & Meeus, 1997; Granot & Mayseless, 2001; Allen et al, 2007)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이 또래애착은 부모애착에 의해 영향받지만, 부모와의 애착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양육행동에 의해서도 영향 받는 것(Dekovic & Meeus, 1997; Page & Bretherton, 2001; Gallarin & Alonso-Arbiol, 2012)으로 알려져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이 수용적이고 따뜻하며 지지적인 경우 자녀의 적응적인 또래애착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반해 자녀에게 권위를 강조하고 엄격한 제한을 설정하며 제한 설정의 이유를 설명하기보다 맹목적 순종을 요구하거나 권력을 기반으로 과잉간섭이나 기대를 하는 등의 제한적이고 권력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의 적응적인 또래애착을 위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이 또래애착 발달의 보호적 환경 요인이라면 제한적이고 권력적인 양육행동은 또래애착 발달을 방해하는 위기적 환경 요인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사항은 부모의 양육행동이 제한적이고 권력적이라도 또래애착은 위협받거나 방해받지 않고 적응성 있게 발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부모와 불안정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만 또래와 안정된 애

착을 형성(Wilkinson & Walford, 1998; Laible et al, 2000; Nickerson & Nagel, 2004)하는 것과 같다.

부모의 양육행동이 제한적이고 권력적임에도 불구하고 또래애착이 적응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지만 기질적 인성 특성인 자아탄력성 개념을 적용시켜 설명할 수 있다. 스트레스나 역경 또는 위협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행동 및 정서 문제를 보이지 않고 보다 건강하게 적응해가는 사람들의 특성을 자아탄력성의 개념으로 설명(Kremen & Block, 1998; Luthar, Cicchetti, & Becker, 2000; Rutter, 2007)한 것처럼 높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제한적이고 권력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에서도 적응적 또래애착이 나타날 수 있는 것도 개인 내적 인성 특성인 자아탄력성이 역할하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와 같은 역경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안정을 잃지 않고 역경을 극복하면서 성공적 적응을 도모하도록 하는 개인 내적 능력(Block & Block, 1980; Block & Kremen, 1996; Klohnen, 1996)을 말한다. Block and Block(1980)에 의해 제안된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 상황이나 위협적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행동적 또는 정서적 문제 없이 적응적 모습을 나타내는 인간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다(Block & Block, 1980; Block & Kremen, 1996; Klohnen, 1996; Block, 2002). 따라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빈곤(Kim-Cohen et al, 2004)이나 학대(Lansford et al, 2006), 가족 폭력(Howell, 2011) 등 부정적 환경에 처함에도 불구하고 적응적 삶의 특성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자아탄력성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애착이론가들이 내적실행모델 개념을 통해 설명한 것처럼 제한적이고 권력적인 부모와의 관계는 또래애착을 방해하는 부정적 환경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자아탄력성이 높은 경우라면 또래애착은 왜곡되지 않고 적응적 형태로 발달할 것으로 보여진다. 즉 부모의 양육행동이 제한적이고 권력적이라 할지라도 개인 내적 인성 특성인 자아탄력성이 높다면 또래애착은 적응적 특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자아탄력성이 지니는 융통성 있는 적응력이 또래애착에 대한 부모의 제한적이고 권력적인 양육행동 즉 통제적 양육행동의 부정적 영향력을 완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자아탄력성은 또래애착에 미치는 부모의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완충시킬 수도 있지만 또래애착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친구관계가 개인적 기질이나 성격특성과 관련 있다는 연구(Stocker & Dunn, 1990; Pike & Atzaba-Poria, 2003; Lee & Jang, 2011)를 고려해 보면, 기질적 인성 특성인 자아탄력성 역시 친구관계의 질을 나타내는 또래애착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친구 관계가 중요한 사회적 관계로 부상하는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또래애착

에 미치는 자아탄력성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초, 중, 고생의 또래애착이 자아탄력성과 정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Yoo, Hong, & Choi, 2002)와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중학교 1학년 자료를 토대로 또래애착과 자아탄력성 간에 정적 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Song and Kim(2012)의 자료가 있을 뿐 거의 연구되고 있지 않다. 특히 자아탄력성의 발휘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는 역경이나 스트레스 상황을 전제로 또래애착과 자아탄력성에 관한 연구를 찾아보는 것은 더욱 어렵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의 개념과 기능적 특성에 기반하여, 스트레스 환경이라 할 수 있는 제한적이고 거부적인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 안에서 나타나는 자아탄력성과 또래애착 간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통제적 양육행동을 교육학용어사전을 통해 살펴보면, 부모의 권력을 기반으로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에 따라 자녀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제약하는 것(Seoul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1995)으로 자녀의 자율성이 존중되지 않는 제한적이고 지배적이며 엄격하며 권력적인 양육행동을 의미한다.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동양권에서 일부 긍정적 측면으로 이해(Shek, 2008) 되기도 하나, 서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관련하여 양육행동의 긍정성과 부정성을 구분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Schaefer(1959)는 부모의 양육방식을 '애정'의 반대 축에 '적대'를, '자율'의 반대 축에 '통제'를 제시하였으며, Rohner and Khaleque(2005)도 수용-거부, 자율-통제가 양육방식을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 차원이라 지적하면서, 통제는 엄격함, 규율, 규제, 지시, 제한 등의 부정적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도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을 부모의 양육방식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측면을 표상하기 위한 조작적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양육행동의 부정성과 역기능성을 표상하는 통제적 양육행동의 특성 때문에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또래애착을 위협할 수 있지만, 자아탄력성이 높은 초기 청소년은 낮은 초기 청소년보다 높은 또래애착을 형성할 것으로 보여진다. 기질적 인성 특성인 자아탄력성이 또래애착에 직접적 또는 완충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접적 영향은 통계적으로 주효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재적 또는 조절적 역할을

의미하는 완충적 영향은 통계적으로 상호작용효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통해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대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자아탄력성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Figure 1>과 같은 연구 모형과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초기 청소년 또래애착에 대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자아탄력성의 주효과는 유의한가?

<연구문제 2>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대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NYPI)이 2010년 수집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1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0)는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 매년 추적 조사하는 단기 종단패널조사 자료다. 또래애착을 종속변인으로 한 이 연구에서는 또래 관계가 초기 청소년기에 더욱 강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자료만을 사용하였다. 중학교 1학년 학생 자료는 78개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2,351명에 관한 자료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이들 자료 중 각 문항에 성실 기입한 2,346명의 자료만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 2,346명 중 남학생 1,171명(49.9%), 여학생 1,175명(50.1%)이며 양친 부모와 사는 학생은 1,994명(84.8%)이며 양친 부모가 없거나 모른다고 대답한 학생은 28명(1.2%)였다. 아버지의 학력은 중졸이하가 75명(3.2%), 고졸 930명(39.6%), 대학졸 1,025명(43.6%), 대학원 졸 138명(5.9%), 결측 183명(7.8%)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은 중졸이하가 78명(3.3%), 고졸 1,262명(53.7%), 대학졸 793명(33.7%), 대학원 졸 60명(2.6%), 결측 158명(6.7%)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1)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 척도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을 부모의 양육방식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측면을 표상하기 위한 조작적 개념으로 사용한 이 연구에서는 Park et al.(2011)의 통제적 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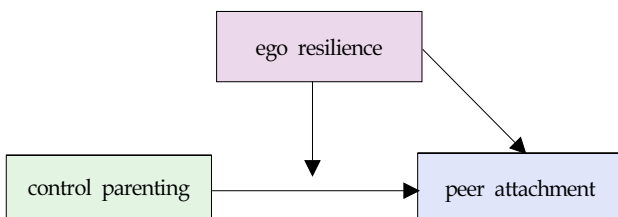


Figure 1. Relationship control parenting and ego resilience with peer attachment

였다. Park et al.(2011)은 Huh(2000)의 부모 양육태도 검사 척도를 활용하여 자료 조사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자료(2010)에서 요인 분석을 통해 Huh(2000)의 부모 양육태도 척도 중 비일관성, 과잉간섭, 과잉기대의 11문항으로 구성된 요인을 통계적 양육행동으로 명명하였다. Park et al.(2011)의 통계적 양육행동은 부모의 양육방식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측면을 표상하는 것으로, 양육행동의 부정성과 역기능성을 표상하기 위해 조작 정의한 이 연구의 통계적 양육행동의 의미를 충분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Park et al.(2011)의 통계적 양육행동은 '부모님께서서는 나에게 모든 면에서 남보다 잘 해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부모님께서서는 보통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불안해 하시어 내게는 못하게 하신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 '그런 편이다(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3점)', '전혀 그렇지 않다(4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졌다. 점수가 높을수록 통계적 양육행동이 높은 것을 의미하기 위해 모든 문항은 역산처리하였다. 문항간 신뢰도 Cronbach's α 는 .83으로 나타났다.

2) 자아탄력성 척도

Block and Kremen(1996)의 자아탄력성 척도를 Yoo et al. (2004)이 번역한 뒤 수정·보완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자료(2010) 14문항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나는 새롭고 다양한 종류의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매우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다.',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는 '매우 그렇다(1점)', '그런 편이다(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3점)', '전혀 그렇지 않다(4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졌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각 문항을 역산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문항간 신뢰도 Cronbach's α 는 .84로 나타났다.

3) 또래애착 척도

Armsden and Greenberg(1987)의 또래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를 재구성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자료(2010)를 사용하였다. '내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생각을 존중해 준다',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 등의 의사소통, 신뢰, 소외 3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우 그렇다(1점)', '그런 편이다(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3점)', '전혀 그렇지 않다(4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진 9문항 중 의사소통과 신뢰 문항(각 3문항)은 역산처리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애착이 높은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이다. 또래애착의 문항간 신뢰도 Cronbach's α 는 .82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자료(2010) 중 중학교 1학년 초기 청소년의 자료 중 독립과 종속변인 모두를 성실하게 응답한 2,346명의 자료만을 대상으로 SPSS 19.0 프로그램의 Pearson의 상관관계와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는 유의수준 .05미만에서 검증하였다.

III. 연구결과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대한 부모의 통계적 양육행동과 자아탄력성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문제 1, 2>는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통해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이에 <연구문제 1, 2>를 해결하기 위해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중회귀분석 전에 독립 및 종속 변인에 관한 기본적 이해를 돕기 위해 문항평균값에 기초한 기술적 통계치를 살펴보았다.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의 통계적 양육행동은 4점 리커트 척도에서 문항평균(표준편차)은 2.53(.55)을 나타냈다. 한편 자아탄력성과 또래애착은 4점 리커트 척도에서 문항평균(표준편차)이 각각 2.08(.46)과 2.02(.50)를 나타냈다.

위계적 중회귀분석은 독립변인의 투입 순서를 서열 배치하는 방법으로 1단계에서는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을 종속 변인으로 하고, 부모의 통계적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2단계에서 부모의 통계적 양육행동(A)과 초기 청소년의 자아탄력성(B)의 상호작용 변인(A×B)을 독립변인으로 추가 투입하도록 서열화 하였다. 2단계에서 투입되는 상호작용 변인은 부모의 통계적 양육행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Peer Attachment, Control Parenting, and Ego-resiliency

Variables	Min-Max	Mean(SD)
Peer attachment	1-4	2.02(.50)
Control parenting	1-4	2.53(.55)
Ego-resiliency	1-3.86	2.08(.46)

Table 2. Bivariate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Variables	Peer attachment	Control parenting(A)	Ego-resiliency(B)	A×B
Peer attachment	1			
Control parenting(A)	-.11***	1		
Ego-resiliency(B)	.46***	.02	1	
A×B	.07**	-.17***	-.01	1

** $p < .01$, *** $p < .001$

Table 3.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of Control Parenting and Ego-resiliency on Peer Attachment

Hierarchical step	Variable	Peer attachment		adjR ²	△R ²	F(df)
		B	β			
1 step	Constant	18.26(.08)		.22	-	339.76*** (2, 2339)
	Control parenting(A)	-.09(.01)	-.12***			
	Ego-resiliency(B)	.32(.01)	.46***			
2 step	Constant	18.25(.08)		.23	.01	229.66*** (3, 2338)
	Control parenting(A)	-.09(.01)	-.12***			
	Ego-resiliency(B)	.32(.01)	.46***			
	A×B	.01(.002)	.05**			

** $p < .01$, *** $p < .001$

동과 초기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의 곱(A×B)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독립변인간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된다.

따라서 상호작용 변인은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변인에서 각각의 평균값을 뺀 센터링 값(Park, 2003)을 각각 구한 후 이를 곱한 값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절차과정을 통한 후 독립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및 더빈 왓슨(D-W)값,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요인을 살펴보았다.

더빈 왓슨(D-W)값은 2에 가까운 1.99로 나타나 오차항의 자기상관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한편 <Table 2>에 나타나 듯 상관계수의 경우 최소 -.01에서 최대 .46으로 나타났으며, 공차한계값인 Tolerance는 .97에서 .99의 범위에서 그리고 분산팽창계수 VIF 값은 1.00-1.03 범위에서 나타나 독립변인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Yang, 2002)으로 나타났다.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통해,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beta = -.12, p < .001$)은 또래애착에 부적으로, 초기 청소년의 자아탄력성($\beta = .46, p < .001$)은 또래애착에 정적으로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미치는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의 영향은 자아탄력성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의 위계적 중회귀분석 2단계에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자아탄력성 간 상호작용 효과가 나

타났기 때문이다.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은 또래애착을 22% 설명하는 것(adjR² = .22, $p < .001$)으로 나타났으며, 상호작용항(A×B)이 추가되었을 때 설명력은 1% 유의미하게 더 증가(△R² = .01)하여 총 23%를 설명하는 것(adjR² = .23, $p < .001$)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대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의 영향을 자아탄력성이 조절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절효과는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대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 관계를 나타낸 <Figure 2>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자아탄력성의 점수 분포 중 상위 30% 이상과 이하를 각각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그리고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 집단에 따른 또래애착을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각각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Figur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또래애착을 나타냈다. 중요한 것은 초기 청소년 가운데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높음에도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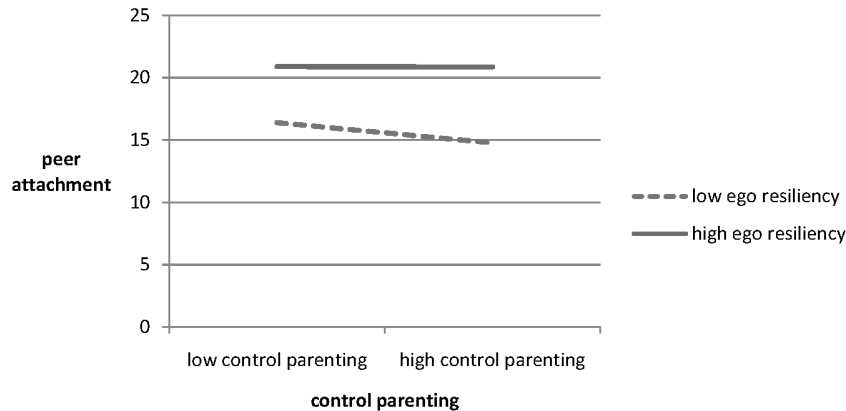


Figure 2. Interaction Effects of Control Parenting and Ego-resiliency on Peer Attachment

구하고, 또래애착이 크게 낮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높을 때 낮은 또래애착을 보인다는 것은 예상된 일이다. 그러나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높다하더라도 자아탄력성이 높으면, 또래애착은 쉽게 낮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대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의 영향을 자아탄력성이 조절하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V. 논의 및 결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집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조사 1차년도 자료(2010) 가운데 중학교 1학년 학생 2,346명의 자료를 중심으로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대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의 영향을 자아탄력성이 조절하는가를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자아탄력성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 및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은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자아탄력성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자아탄력성이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대해 주효과를 지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선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양육행동이 부정적일수록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은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Bowlby(1973, 1979)를 위시한 애착이론가들이 강조하는 내적작동모델을 지지하는 것이다. 내적작동모델에서는 부모와의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부모의 돌봄에 대한 기대가 궁극적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내적표상 즉 내적작동모델의 원천이 되어 타인과 정서적 유대를 맺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부정적

양육행동인 비밀관적이며 과잉기대적이고 과잉간섭과 같은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초기 청소년에게 부모와의 관계 뿐 아니라 또래 관계에서 지지와 우호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래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을 방해함으로써 낮은 또래애착을 형성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부모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화된다고 보는 초기 청소년기라 해도 부정적 양육행동인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의 경험은 소홀히 볼 수 없는 유해한 환경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또래관계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급부상하는 초기 청소년기의 사회적 적응을 또래애착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정 안에서 건강한 내적표상모델을 형성할 수 있는 양육행동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양육행동을 매개로 한 부모와의 상호작용 과정 안에서 내적표상모델이 건강하게 형성되어진다면 이를 기반으로 초기 청소년은 또래관계에서 자발적이며 능동적으로 정서적 친밀감이나 유대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진다.

한편 자아탄력성은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또래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연구결과(Werner & Smith, 1992; Herman-Stahl & Petersen, 1996; Chung & Yoo, 2008)와 유사한 것이다. 한편 성인애착이 또래애착과 마찬가지로 가정 밖 사회적 관계망에서 형성되는 정서적 친밀감을 고려해 볼 때, 자아탄력성이 높을 때 보다 높은 또래애착을 나타내는 것은 자아탄력성이 높을 때 성인애착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연구결과(Na & Ahn, 2011)와 유사하다 할 수 있다. 자아탄력성은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들에 대해 좌절하지 않고 환경에 유연하게 반응하는 능력(Block & Block, 1980)이기 때문에 자아탄력성이 높은 초기 청소년은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에서 형성될 수 있는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긴장감이나 불편감보다 정서적 친밀감이나 소통감을 또래관

계에서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아탄력성이 높은 초기 청소년은 또래관계에서 보다 높은 또래애착을 나타낸 것이라 보여진다.

둘째,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자아탄력성은 상호작용 효과를 통해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Figure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높아질 때 또래애착은 낮아지나,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높아진다고 해서 또래애착이 낮아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자아탄력성이 낮은 집단의 경우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높아지면 또래애착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높아지면 또래애착은 낮아진다. 그 상황에서 자아탄력성까지 낮아지면 또래애착은 더욱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자아탄력성이 높다면 또래애착은 심하게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함으로써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또래애착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자아탄력성이 방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 발달에 위기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자아탄력성은 위기 요인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시키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고려할 점은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대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 효과의 설명력 증가가 연구결과에서 제시했듯이 1% ($\Delta R^2 = .01$)로 크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대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 효과를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자아탄력성은 역경이나 어려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고 효율적으로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기질적 인성 특성의 개인 내적 변인이라는 주장(Block & Kremen, 1996; Klohnen, 1996)을 고려해 볼 때, 초기 청소년기 또래애착을 위협하는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 안에 내재해 있는 자아탄력성의 기능을 최대화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Table 3>에서는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미치는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의 영향이 자아탄력성에 의해 조절된다는 사실과 함께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이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beta = -.12$)보다 자아탄력성($\beta = .46$)에 의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영향받고 있다는 사실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초기 청소년에게 있어 자아탄력성이라는 기질적 인성 특성의 개발이 학교 생활의 성공적 적응을 위해 필요한 또래애착(Chang, Song, & Cho, 2011) 강화에 매우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학교 입학과 더불어 청소년기에 공식적으로 입문하는 초기 청소년들에게 인성 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아탄력성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중학교 입학과 더불어 경험하는 또래관계의 질이 건강한 학교생활적응을 예측하는 의미있는 변인(Lee & Kim, 2008)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초기 청소년의 자기 강점이라 할 수 있는 자아탄력성 개발 프로그램은 또래애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의 고유적 개념을 기반으로 위기적 환경, 스트레스 환경이라 할 수 있는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만을 토대로 또래애착에서의 자아탄력성 역할을 조명하였다. 이 점은 이 연구가 갖는 학문적 강점이면서 동시에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부모의 온정적이고 지지적인 양육행동인 애정적 양육행동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은 것은 이 연구의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을 살펴보지 않은 것은 위기적 환경 요인 안에서 보호적 중재 역할을 한다는 자아탄력성의 개념적 측면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후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의 발달적 측면과 관련하여 자아탄력성을 개발시키기 위한 자원으로서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또래애착 간의 관계를 중재적 조절 효과가 아닌 매개적 인과 모형을 통해 살펴보았으면 한다.

REFERENCES

- Allen, J. P., Porter, M. McFarland, C., McElhaney, K. B. & Marsh, P. (2007). The relation of attachment security to adolescents' paternal and peer relationships, depression, and externaliz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78*(4), 1222-1239.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3.
- Armsden, G. C., McCauley, E., Greenberg, M. T., Burke, P. M., & Mitchell, J. R. (1990).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 early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8*, 683-697.
- Berndt, T. J., Hawkins, J. A., & Jiao, Z. (1999). Influences of friends and friendships on adjustment to junior high school. *Merrill-Palmer Quarterly, 45*, 13-41.
- Block, J. (2002). *Personality as an affect-processing system*. Mahwah, NJ: Erlbaum.
- Block, J. H., & Block, H. (1980). The role of ego-control

-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Ed.),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pp. 33-101). Hillside, NJ: Erlbaum.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Brown, B. B. & Klute, C. (2006). Friendships, cliques, and crowds. In G. R. Adams, & M. D. Berzonsky(Eds.), *Blackwell handbook of adolescence*(pp. 330-348). Oxford, UK: Blackwell Publishing.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79). *The making and breaking of affectional bonds*. London: Tavistock.
- Bowlby, J. (1982). *Attachment: Attachment and loss Vol. I*(2nd ed.). New York: Basic Books.
- Chang, S., Song, S., & Cho, M. (2011). The effects of mobile phone dependency,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attachment to peer on school life adjust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2), 431-451.
- Chung, A. & Yoo, S. (2008). Relationship of perceived stress and ego resilience to interpersonal problems of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8, 139-160.
- Dekovic, M. & Meeus, W. (1997). Peer relations in adolescence: Effects of parenting and adolescents' self concept. *Journal of Adolescence*, 20(2), 163-176.
- Gallarín, M. & Alonso-Arbiol, I. (2012). Parenting practices, parental attachment and aggressiveness in adolescence: A predictive model. *Journal of Adolescence*, 35(6), 1601-1610.
- Granot, D. & Maysel, O. (2001). Attachment security and adjustment to school in middle childhood.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5(6), 530-541.
- Herman-Stahl, M. & Petersen, A. C. (1996). The protective role of coping and social resources for depressive symptoms among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5, 733-753.
- Howell, K. H. (2011). Resilience and psychopathology in children exposed to family violence.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6, 562-569.
- Huh, M. (2000). *The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arenting Behavior Inventory perceived by adolesc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University, Seoul.
- Jun, H. & Lee, K. (2002). The effects of early attachment history with mother on adolescent attachment formation and stress percep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9(2), 191-210.
- Kerns, K. A., Tomich, P. L., & Kim, P. (2006). Normative trends in children's perceptions of availability and utilization of attachment figures in middle childhood. *Social Development*, 15, 1-22.
- Kim-Cohen, J., Moffitt, T. E., Caspi, A., & Taylor, A. (2004). Genetic and environmental processes in young children's resilience and vulnerability to socioeconomic deprivation. *Child Development*, 75(3), 651-668.
- Klohnen, E. C. (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067-1079.
- Kremen, A. M. & Block, J. (1998). The roots of ego-control in young adulthood: Links with parenting in early childh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1062-1075.
- Laible, D. J., Carlo, G., & Raffaelli, M. (2000). The differential relations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to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 45-59.
- Lansford, J. E., Malone, P. S., Stevens, K. I., Dodge, K. A., Bates, J. E., & Petit, G. S. (2006).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s: Factors underlying resilience in physically abused childre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8, 35-55.
- Lee, K. & Kim, M. (2008). A validation study of the school adjustment scale middle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5(1), 27-40.
- Lee, W. & Jang, H.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sibling and friends relationships and 5-factor personality trait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4(4), 1-18.
- Luthar, S. S., Cicchetti, D., & Becker, B. (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3), 543-562.
- Meeus, W, Oosterwegel, A., & Vollebergh, W. (2002)

- Parental and peer attachment and identity development in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25(1), 93-106.
- Na, S. & Ahn, M. (2011). Parental emotional bond and adult attachment: The mediating role of ego-resilience and psychological separation.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6(3), 331-355.
- Neils, S. M. & & Rae, G. (2009). Brief report: Peer attachment in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32(2), 443-447.
- Nickerson, A. B. & Nagle, R. J. (2004). The influence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s on life satisfaction in middl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Social Indicators Research*, 66, 35-60.
- Noom, M. J., Dekovic, M., & Meeus, W. (1999). Autonomy, attachment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during adolescence: A double-edged sword? *Journal of Adolescence*, 22(6), 771-783.
- Page, T. & Bretherton, I. (2001). Mother-and father-child attachment themes as represented in the story completions of preschoolers in postdivorce families: Linkages with teacher ratings of social competence.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3, 1-29.
- Park, J., Moon, J., Lee, M., & Kang, W. (2001).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 on adolescents' self-esteem, school adjustment, and life satisfaction. *Proceedings book of the 1st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187-200.
- Park, K. (2003). *Analysis of variance and regression analysis*. Seoul: HakJiSa.
- Pike, A. & Atzaba-Poria, N. (2003) Do sibling and friend relationships share the same temperamental origins? A twin stud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4(4), 598-611.
- Rohner, R. P. & Khaleque, A. (2005). *Handbook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4th ed). Storrs, CT: Rohner Research Publications.
- Rutter, M. (2007). Resilience, competence, and coping. *Child Abuse & Neglect*, 31, 205-209.
- Schaefer, E. S.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 226-235.
- Seoul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1995). *Terminology dictionary on education*. Seoul: Howdongseal.
- Shek, D. T. L. (2008). Perceived parental control in Chinese adolescents in Hong Kong: A three-year longitudinal study. *The Open Family Studies Journal*, 1, 7-16.
- Song, M. & Kim, S. (2012). The relationship among peer attachment, ego-resilience and mobile phone dependency in middle school students. *Forum for Youth Culture*, 32, 65-89.
- Stocker, C. & Dunn, J. (1990). Sibling relationships in childhood: Links with friendships and peer relationship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8, 227-244.
- Sroufe, L. A., Egeland, B., Carlson, E., & Collins, W. A. (2005). Placing early attachment experiences in developmental context. In K. E. Grossmann, K. Grossmann, & E. Waters (Eds.), *The power of longitudinal attachment research: From infancy and childhood to adulthood*(pp. 48-70).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s.
- Werner, E. & R. Smith. (1992). *Overcoming the odds: High-risk children from birth to adulthood*.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Wilkinson, R. B. & Walford, W. A. (1998). The measurement of adolescent psychological health: One or two dimension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7(4), 443-455.
- Yang, B. (2002). *Understanding and utilizing of multivariate data analysis*. Seoul: HakJiSa.
- Yoo, S., Hong, S., & Choi, B. (2002).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attachment, and existential spirituality between family risks and adaptation.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8(1), 393-408.

접수일 : 2013년 07월 15일

심사일 : 2013년 07월 27일

게재확정일 : 2013년 09월 13일